

# ‘東大 로스쿨 선정’ 불자 힘 모은다

## 동국대 로스쿨 대책위,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



조계종 종립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의 로스쿨 선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조계종 동국대 로스쿨 대책위원회(위원장 법타)는 3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대책위는 회의 직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서명운동 고불식을 봉행하고 공식적인 서명운동 시작을 알렸다.

대책위 회의 후 동국대 최순열 부총장은 "이번 서명운동은 불교 편향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동국대 로스쿨 선정의 당위성을 일러는데 중점을 두고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해 서명운동의 목적이 로스쿨 탈락 규탄하기 보다는 로스쿨 선정의 당위성을 천명함에 있음을 밝혔다.

고불식에는 법타 스님(대책위 위

원장),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 토진 스님(조계사 부주지) 등 종단 소임자들과 오영교 총장(동국대), 종호 스님(정각원장), 정용상 학장(동국대 법과대학) 및 석림회 학인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교직원·학생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법타 스님은 "전국 16위, 수도권 13위를 한 동국대의 로스쿨 탈락은 2천만 불자의 자부심과 종립 동국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동국대의 로스쿨 선정도 이루지 못한 교계 상황을 10·27법난에 빗대 "2007년 2월, 제2의 법난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스님은 "9월 로스쿨 확정 이전에 동국대의 로스쿨 선정을 위해 전 불자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말해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서명운동은 100만명을 목표로 3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총선 선

거일 전날인 4월 8일까지로 3월 27일 고불식 후 청와대와 정·관계에 탄원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했다. 2차는 부처님오신날 이후인 5월 18일까지 교계 봉축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3차는 로스쿨 선정 대학 9월 본인이 직전인 8월 31일까지 100만 불자 서명운동이 지속된다.

서명운동에는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가 적극 참여한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동국대 로스쿨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을 걸고, 리플릿·서명용지 등을 배포해 말사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동국대 홈페이지와 종단 사이트, 교계 언론 사이트를 활용한 전자서명 운동도 시작된다. 분지 인터넷뉴스사이트 불타뉴스(news.buddhapia.com)를 통해서도 동국대 로스쿨 선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이 가능하다.

◀고불식 후 스님들과 동국대 오영교 총장이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착공

## 전통춤 가득한 도심속 쉼터로

<1면에서 계속> 3월 28일 첫 삽을 뜬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씨(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이사)의 설계로 건립된다.

승효씨는 서울 장충동 웰컴시티와 화동 수출단지, 서초동 법원 청사 등의 건축작품으로 건축상과 대한민국예술문화상을 수상했으며 2002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보센터는 대지 579㎡(약 175평), 연면적 2314㎡(약 692평)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된다. 조계사 소유의 부지에 건립비 국고 40억 원이 투입돼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다. 건물 1층 입구에는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지붕에는 마당을 꾸며 도심 정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하 2층은 기계실로, 지하 1층은 전시관으로 운영되며, 지상 1층에는 안내센터와 홍보관이, 2층에는 조계사가 운영하게 될 전통차집이 마련된다. 3층은 템플스테이 운영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관, 4층은 사무실이 들어선다.

또한 5층에는 한국불교문화사



서울 인사동에 건립될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조감도. 사진=박재완 기자

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진경 스님은 "정보센터는 문화의 거리인 인사동과 조계사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공간개념 구현에 역점을 두고 설계했다"며 "인사동을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언제나 부담 없이 들러 차도 마시고 템플스테이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꿔야겠다"고 말했다.

여수경 기자

## 불교계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설립

### 4월 중 활동 시작...기부문화 확산 홍보 주력

교계에서도 '아름다운 재단'과 '월드비전'에 버금가는 공익법인이 설립된다. 조계종은 3월 25일 교계 최초 비영리 공익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으로 정하고 설립발기인총회를 마쳤다.

총회에는 지관 스님(총무원장), 세영 스님(사회부장), 박정규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이명묵 원장(동국대 의료원), 한미영 부사장(태양금속공업), 박태수 회계사(삼덕회계법인), 김봉석 변호사(P&P법률사무소) 등이 참석해 재단설립 및 법인명 명명, 정관 채택, 기본재산출연, 임원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안건을 의결했다.

'아름다운 동행'은 조계종유지재단에서 출연한 4억여 원과 기부모금 예상액 6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의 예산계획을 세웠다. 기부모금 예상액 6억 원은 300~500여명 개인 후원자를 통해 월정액을 모으고 기업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모금으로 마련된다.

4월 중 행정안전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법인 등기를 마치고 법인인 재단·재해 긴급구호활동 및 소외계층 지원 등을 펼친다. 초기에는 생활 속 모금 실천 캠페인 등 법인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으로 5월 사이트 개설, 7월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을 통한 수도권 사찰 모금 활동 등

기부문화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상임이사 세영 스님(사회부장)은 "그동안 불자들에게 마땅한 기부처가 없었다. '아름다운 동행'이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사회 곳곳에 도움이 손길을 전할 것"이라 말했다. 세영 스님은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이 필요하다"면서 '아름다운 동행'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조동섭 기자



3월 25일 열린 '아름다운 동행' 설립 발기인 총회. 사진=박재완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 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민메트로닉스 NAVER 7월 7일 마미로봇 최우수브랜드

## 동국대, 美 예일대에 500억 손배소

### "신정아씨 박사학위 허위검증 책임져야"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美 예일대의 신정아씨 박사학위 허위검증의 책임을 물어 3월 25일(현지시간 3월 24일), 美 예일대 소재자인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에 500억원 상당(미화 5천만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월 26일 동국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진수 부총장은 "신정아씨 임용 당시 박사학위 검증을 요청했으나 예일대의 잘못으로 신정아씨를

재용하게 됐다. 작년 여름 신정아씨 학위 논란시 재검증 요청에 대해서는 학력확인 요청공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 동국대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다.

동국대가 예일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신정아씨 임용당시 학력확인 요청 공문을 등기로 발송했으나 신정아씨의 학위취득사실을 확인한 팩스로 보낸 점 ▲2007년 6월 신씨의 박사학위 진위여부 논란

시 재검증을 의뢰한 것에 대해, 예일대가 2007년 7월 10일 법무실장 명의의 답변서신에서 2005년 9월 22일자 학위취득사실 확인 팩스가 사실임에도 '조작된 가짜'라고 부인한 점 ▲동국대가 학위검증요청 공문을 요청한 사실을 예일대에 지속적으로 제시했음에도 예일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예일대가 한국의 주요 언론을 상대로 동국대로부터 학력검증을 의뢰 받은 사실이 없고, 2005년 9월 22일자 팩스가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했던 점 등이다.

한 부총장은 "예일대의 잘못으로 동국대는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동문·기업 등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의 급격한 감소와 2008학년도 입시지원율이 감소하고, 한국능력원회의 우수고객서비스 후보에서 실격하는 등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00억 원 규모로 미국 내에서 적용되는 징벌적 보상에 대한 금액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일대는 소송서류를 전달 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동국대측은 이번 소송에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동섭 기자

# 석주당 정일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중앙승가대학 초대학장, 동국역경진흥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신 석주 큰스님은 근현대 한국불교의 포교·역경·복지·교육 등에 그 원력을 미치지 않은 분사가 없으셨습니다.

석주정일문도회(대표 월호 스님)와 한국불교선리연구원(선구원장 법진 스님)은 석주 큰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헌신하신 큰스님의 발자취와 덕망을 기리며 미래의 한국불교가 지향해야 할 바를 계연하고자 기념학술회의를 아래와 같이 마련합니다.

대덕 스님들과 문도 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두루 참석하여서 큰스님의 발자취와 덕망을 더욱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2(2008)년 4월 8일(음 3.3)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제 : '석주 큰스님과 한국불교'
- 법 어 : 월운 스님
- 발표자 : 송운 스님(보문사 주지), 홍윤식(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김선근(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고명석(조계종 포교원 선임연구원), 법진 스님(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

### 석주당 정일 대종사 탄신 100주년 다례제

- 일 시 : 불기 2552(2008)년 4월 8일(음 3.3)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칠보사 큰법당